



경남일보

HOME > 오피니언 > 경일춘추

[경일춘추]유년의 빛, 눈물꽃

경남일보 | 승인 2026.07.30 18:37

김강섭 한국농어촌공사 차장·건축사



김강섭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건축사

눈물꽃은 어린 소년의 눈에 맺힌 이슬 같은 마음을 뜻한다. 눈물꽃 소년이 자란 하동 청암은 인정이 넘치는 곳이었다. 유년 시절은 개발의 물결로 분주했다. 할머니와 부모님은 인간의 도리와 책임, 절제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 넉넉하지 못한 동네였으나 웃음꽃이 피었고, 부족함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는 손길이 있었다.

자연은 또 다른 스승이었다. 기다림과 견딤이 무엇인지, 천천히 익어 가는 마음이 무엇인지 배웠다. 기쁨과 슬픔이 거울처럼 같이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노래했다. 어린 시절의 체득이 힘듦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는 힘이 됐다.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다. 세월은 바람같이 흘러 어느새 중년의 문턱을 넘었다. 진주로 이사한 이후에는 도시의 이방인으로 살았다. 유랑민처럼 삭막한 도회지에서 옛 시절을 그리워하며 추억과 흔적을 찾았다. 내 몸과 영혼은 소년 시절의 향기와 고향의 흙냄새를 그리워했다.

도시의 삶은 빠르고 거칠었다. 물질과 속도, 기술과 정보가 넘치는 시대, 성취의 이면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쌓여 갔다. 사람의 온기와 미덕은 점점 희미해졌다. 마음은 바빴지만, 안식은 멀어졌고 허무함만 남았다. 기억은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었다.

깊은 물음이 떠오른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마다 어린 시절의 눈물꽃 소년으로 되돌아간다. 순수한 영혼과 간절한 마음, 강인한 의지가 숨 쉬던 시간을 추억한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던 눈동자가 다시 깨어난다. 어둠은 비어 있지 않았고 그 속에서도 빛은 자라고 있었다.

이제야 깨닫는다. 내가 받은 선물은 사랑과 인정, 배려와 끈기, 슬픔과 기쁨의 기억이었다. 기억으로 쌓인 시간이 나를 만들었다. 기억은 삶의 뿌리가 됐고 경험은 길이 됐다. 살아온 시간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야기로 남았다.

가장 빛나던 순간은 순수로 가득했던 유년 시절이다. 소박하고 진실했던 시간, 풋풋한 인정과 손길, 밀도 높은 삶의 결이 오늘을 지탱한다. 고향의 풍경과 사람들의 따뜻한 숨결을 되돌릴 수 없으나, 그 기운은 여전히 나의 삶을 밀어 올린다. 유년의 기억, 사랑의 온기, 사람의 도리가 걸음을 일으킨다.

세상의 벽과 마주할 때 어린 날로 돌아간다. 아직 피지 않은 꿈과 희망을 품고 있던 눈물꽃 소년의 시간으로 달려간다. 소년의 기억은 눈물꽃에 피어 있다. 소년은 먼 곳을 바라본다. 바람은 삶의 길 위에서 다시 일어서라 말한다. 빛은 조용히 마음을 어루만진다. 괜찮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천천히 걸어가면 된다고....



경남일보

저작권자 © 경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